

보도	배포시	배포	2024.12.18.(수)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	책임자	국 장	위충기	(02-3145-7120)	
		담당자	팀 장	안태승	(02-3145-7130)	
	금융감독원 IT검사국	책임자	국 장	유희준	(02-3145-7420)	
		담당자	팀 장	김현돈	(02-3145-7425)	
	금융보안원 금융보안관제센터	책임자	센터장	김기철	(02-3495-9300)	
		담당자	팀 장	장재환	(02-3495-9310)	

## 금융감독원은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IT 비상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상황에 따른 해킹 등 사이버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부 위협으로부터 금융IT의 안전적 운영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보안원(이하 '금보원')과 전자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457개 금융회사와 함께 '24.12.17일(화)' 「금융IT 비상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사이버 위협 동향 점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 < 금융IT 비상대응 점검회의 개요 >

☑ 일 시 : '24. 12. 17.(화) 15:00~17:00(비대면 회의)

☑ 대 상 : 457개사\* (전자금융업무 수행 회사)

\* 은행(32), 금투(65), 보험(41), 저축은행(80), 여전(39), 전자금융(184), 신용정보(8), 상호(3), 기타(5)

사이버 동향을 점검한 결과, 해킹·디도스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침해대응 건수\*도 전년보다 낮게 나타나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등 현재까지 특이한 공격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 (금보원 관제센터) 최근(11월말~12월초) 침해시도 건수는 작년 동일기간에 비해 약 17% 감소하였고, 일반적인 단순 스캐닝(취약점 자동 탐지시도) 공격 사례로 확인

다만, 향후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 발생 시 금융권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하기로 하였고, 보안관제 활동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는 재해나 중요 장애 등에 대비한 자체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유사시 즉시 실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태세를 갖추는 한편, 금융전산 위기경보 '주의' 단계에 준하는 대응활동을 지속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 점검회의 유의사항 안내 >

- ① 금융회사 비상대책 수립·운용의 적정성 점검 및 비상시 즉각 대응체계 유지
- ② 해킹·디도스 등 사이버위협 보안관제 모니터링 및 대응 강화
- ③ 금융전산 위기경보 '주의' 단계에 준하는 대응 활동 지속 유지
  - ▶ 금융전산 관련 규정 등에 따른 기술적, 관리적 보안대책 수행 및 점검
  - ▶ 전산망 장애, 사이버공격 등 이상징후 포착시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 및 전파
- ④ 금보원의 **651개 공격 표면\***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 안내
  - \* 외부에 공개된 IT 정보자산의 구성요소(서비스, S/W 등) 중 보안패치 미비 등으로 인한 잠재적 해킹 공격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 요소
- ⑤ 금보원 연계 DDoS 대피소 **85개 기관**, 클라우드 대피소 **12개 기관** 정상연계 여부 점검

금번 회의를 통해, 금융권이 사이버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외부 위협으로부터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향후 금융보안 유관기관(금보원 등)과 정보공유 채널을 구축하여 이상징후 발생 등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합관제 체계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